

지방자치·국제

‘제주 평화포럼’ 참가 주한 미·러·EU 대사들

“북핵 해법은 다자간 대화”

그레그 前 대사 “6자회담 정체·실패, 일본도 책임 있어”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제주 평화포럼을 계기로 주한 미국·러시아·유럽연합(EU) 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13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사회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촉진-선형적 외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관 원탁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각국 대사들은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 협력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동아시아를 비롯한 기타 지역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를 통한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 대화 과정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레브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은 러시아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러시아는 이를 해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바센초프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6자회담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것이 만큼 6자회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북한은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핵개발을 중단하고 다양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리안 맥도널드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미국의 ‘행동 대 행동’이나 ‘봉쇄정책’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뒤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 접근방법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가속하는 노

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도널드 대사는 무역이나 경제위기, 환경, 한반도 등 동아시아 현안을 소개한 뒤 특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포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대표로 나선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동북아의 다자적 안보질서의 틀은 북한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앞서 사회자 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의 협력을 진전시킬 수 없다”면서 “거대를 원하는 북한과 고위급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이 문제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의 정체와 실패에는 일본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가을 겨냥 ‘관광 마케팅’ 올인

전남도가 다가오는 가을을 겨냥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중국 허베이 지역 여행업체와 인연매체 관계자 25명을 초청,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와 보성 다원, 순천 송광사, 낙안 읍성 등지에서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한 답사활동을 벌인다. 도는 이번 답사를 통해 중국 진화도와 인천을 운항하는 패리를 출입국 루트로 하는 새로운 여행 상품 코스를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강력한 홍보 효과를 발휘하는 국내 여행 파워블로거 25명도 15일부터 이를 통한 완도 청산도, 명사십리 해변, 강진 첨차축제, 다산초당 등 주요 관광지와 남도음식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



네살 어린이 구출 ‘아슬아슬’ 태풍 ‘모리콧’의 영향으로 타이완에서 100여 명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2일 타이완 남부 카오슝의 한 마을에서 구조대원이 무너진 다리 위에서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네살짜리 어린이를 구출해 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호 수변생태관찰로 내일부터 시민에 개방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수변생태관찰로가 15일부터 시민들에 개방된다. 13일 광주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수생 동·식물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길은 기존에 설치된 관찰대 2곳과 전망대를 이어주며, 그 길이는 480m이다. 이 관찰로는 그동안 관람객이 관찰할 수 없었던 수려한 수변공간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됐다. 한편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멧돼지 등 9종의 포유류와 자비구리 등 27종의 조류, 양서류 7종, 파충류 3종, 어류 17종, 초본류 117종, 곤충류 50종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지난 2006년 3월 개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2050년 세계인구 94억명”

아시아 인구 40억→53억 세계 인구가 2011년까지 70억, 2050년까지 94억으로 증가하고 대부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이나 저개발국들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의 저명한 인구연구소가 12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50년 세계 인구 94억이라는 숫자는 유엔이 최근 전망한 추정치 91억보다 3억명이 많은 수치이다.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사회국은 2050년까지 인도가 17억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중국은 14억으로 2위, 미국은 4억3천900만명으로 3위를

‘잠 못드는 일본’ 도쿄 해상 또 지진

앞으로 40년 간 세계 인구 증가 중 무려 97%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PRB는 2009년 세계 인구 통계 보고서에서 말했다. 개발도상국들이나 저개발국들에서는 공중 보건 향상과 사망률 감소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PRB는 말했다. 아시아 인구가 2050년까지 가장 많이 늘어나 현재 40억에서 53억이 되고 출생률과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아프리카는 현재 약 10억 인구가 약 20억이 될 것이라고 PRB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 인근 해상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13일 오전 7시49분 도쿄 부근 해상인 하치조지마 심해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진은 하치조지마 해상 해저 40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도쿄도의 하치조지마에서 진도 5, 시즈오카 일부 지역, 치바 일부지역, 시나카와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3을 기록했다. 도쿄 시내에서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감지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애수당 누락자 찾아...

광주시 ‘찾아가는 복지행정’ 눈길

광주시가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누락자를 찾아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장애수당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차상위 의료급여 2종(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전환된 자’ 수급권자이며 등록 장애인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다. 시는 복지전산망인 새울행정시스템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대

상자 전체 명단을 뽑은 뒤 이 가운데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수당은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6만1천575명이며, 상반기까지 매달 1만4천905명에게 모두 65억6천400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Advertisement for university entrance exam success, featuring '김영' (Kim Young) and '2010년 대학편입 성공' (2010 University Transfer Succes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김영면입학원 (Kim Young Myeon Inhakwon).

Large advertisement for '베트남 국제결혼' (Vietnam International Marriage) and '중고장수기합인판매' (Used Long-life Machine Auction). Features photos of couples and a large price tag of 8만원~11만원 (80,000~110,000 KRW).